

서울시교육청, 종로 전 청사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행정 기능 재배치, 청사 기능 전환 AI·건강·행정·온라인학습 지원 리모델링 과정서 안전성 검토도



서울시교육청 종로 전 청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2026년 용산 신청사 이전과 함께 종로구 전 청사의 행정 기능은 재배치하고, 학생·교직원·시민이 함께 쓰는 AI·건강·행정·평생학습 결합형 '서울교육 성장지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교육모델 확산, 학부모·시민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해 45년간 사용해 온 종로구 청사를 개방형 복합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 기능 일부는 재배치 하되, 청사 기능은 학생 성장과 교직원 지원, 시민 체험이 어우러지는 복합 플

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간 재배치 계획을 보면, 본관 1~2층에는 AI 교육센터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학생 대상 프로젝트형 체험교육과

기업·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에게도 디지털·AI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교육 경

계를 낮추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열린 교육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안전진흥원 1층에는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신설한다. 학생 건강 문제에 대한 종합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직원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본관 10층에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조성해 순환근무와 협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관 3~6층에는 중부교육지원청, 7~8층에는 보건안전진흥원을 각각 이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반 건축물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행정 공간을 확보한다.

정보 인프라도 강화한다. 보건안전진흥원 지하 1층과 2~3층에는 서버실을 확충하고, 이원화된 교육정보화부를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행정과 온라인 학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별관동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 배치해 민간 임차 부

담을 줄이고 노사 상생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내진 성능과 석면 등 안전성 검토를 병행해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일정은 ▲2025년 활용계획 확정 및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2026년 투자심사·예산 반영·설계 착수 ▲2028년 상반기 공사 완료 후 개관 순으로 진행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종로구 청사가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서울교육 정책과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학생·교직원·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침해 시 '엄정 처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담조직 설치·소명권 보장 등 담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돼도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정당할 이유 없는 인사상 불이익은 금지되고,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보육교직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근거와 민원 조사 과정의 소명권 보장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원·진정 조사과정에서의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또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할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원이나 진정 제기로 인해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현재 서울·경기 2개 시도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담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취·창업 실패 경기도민 재도약 프로그램

경기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재도전학교' 운영... 경쟁률 6대 1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취업이나 창업 실패를 경험한 도민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경기 재도전학교' 제1기 참가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실패 경험자들이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심리 치유와 직무 역량 강화,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제1기 모집에는 총 301명이 지원해 50명 정원 기준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순이었다. 지원자 가운데 191명(63%)은 구직을, 110명(37%)은 창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원 동기는 취업 좌절, 퇴직 후 재취업 실패, 창업 후 조기 폐업, 반복되는 취·창업 실패 등이었다.

제1기 교육은 RE:DO, 우리 다시 할 수 있어요'를 주제로 3월 23일부터 27일

까지 진행된다. 충북 충주의 깊은산속운달샘연수원에서 2박 3일 힐링 프로그램이, 의정부 아일랜드캐슬호텔에서 2박 3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이 각각 운영되며 참가 비용은 무료다.

교육 과정에는 개그맨 고명환의 '365일 가슴 설레며 도전', 작가 고도원의 '꿈 너머 꿈' 등 명사 특강과 취·창업 교육, 전문가 컨설팅, 힐링 프로그램, 재도전 계획서 작성, 비전 선포식 등이 포함된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과 협력해 취업 상담과 창업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수료 이후 창업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 제도 참여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재도전학교는 4기수로 운영돼 참가자 200명 중 약 45명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했다. 참가자 전원이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올해는 운영 규모를 5기수로 확대한다. 제2기는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은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광화문 방문객 편의·체류 만족도 높인다

서울시, 교통·안전 정보 실시간 제공 상담·외국어 지원 인력 확대도

서울시가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시민과 국내외 방문객을 위한 교통·안전·관광 통합안내에 나선다. 공연장 안팎의 교통 통제와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서울광장과 서울갤러리 등 도심 곳곳에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연 관람객의 편의와 체류 만족도를 함께 높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공연 관련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안내 페이지를 서울시 누리집 내에 개설하고 교통, 안전, 편의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 임시 우회 버스노선, 차량 통제 구간, 공연장 반입 금지 물품, 인근 화장실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간체·번체, 일본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현장 안내도 강화한다.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공연 티켓부스에 비치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리플릿은 공연장 인근 관광안내센터와 숙박시설 등 주요 거점에도 비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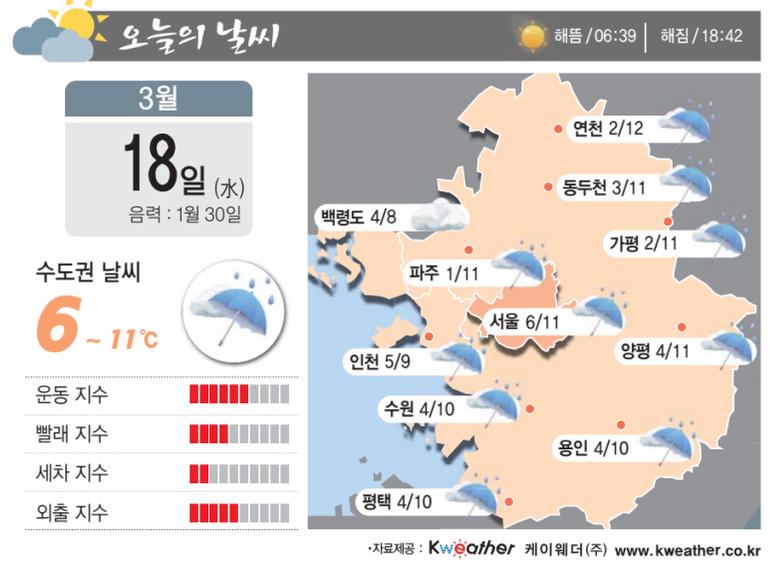
공연 전날과 당일에는 120다산콜재단의 상담 인력과 외국어 지원 인력도 늘린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현수막과 공연 티켓부스에 비치되는 해치 포토카드형 리플릿에 QR코드를 삽입해 종합안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

/서울시

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실시간 음성 인식 모니터링과 상담사 교육 강화로 특이 민원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이스라엘군, 테헤란의 IRGC해군본부 폭격 파괴 발표 /사진 뉴스사
▲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장기 점령?..."지상전 개시, 피난민 복귀 불가"

▲ "이란전? 우리 전쟁 아냐" 독일도 손절...사면 추가 트럼프
▲ 홍콩 매체 "트럼프는 狂人...미중 회담 연기, 中에 불리하지 않아"

▲ "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 "日, 美에 AI 조선기술 개발 1억달러 투자 추진"